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정도채 연구위원 061-820-2107 dcchung@krei.re.kr 내 용 문 의 김수린 부연구위원 061-820-2036 slkim@krei.re.kr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25호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4.12.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REISATA



제225호(2024, 12, 27,)

2024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박혜진

요 약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고 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각각 30.4%, 23.2%에 불과하였으나, 도시민 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62.3%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특히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54.5%로 증가함.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농촌일지라도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도시민이 상당함을 보여줌.

농업인 약 절반은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아

-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담보하는 일을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3.6%, 30.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 2명 중 1명은 소득에 대한 불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 농업인은 대체로 전년 대비 올해 농업 경영 여건은 악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럼에도 여전히 농업인의 약 60%는 생산비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농업인의 전반적인 농촌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7.7%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환경(12.8%), 대중교통(14.8%), 보건의료(17.3%)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올해 가장 주요했던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를, 도시민은 '장바구니 물가안정' 관련 이슈를 선정

-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둘러싼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실제 농업인의 88.4%는 지난 3~5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전년도 보다 7.1%p 증가한 수치로, 생산량 변화(68.2%), 영농활동 어려움 가중(52.0%) 등을 지적하였음.
- 도시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비싸다고 평가하였으며, 59.5%는 내년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조치로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44.4%),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 또는 방출'(13.8%) 등을 요구함.

01

표 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농업정책 및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도시민이 응답한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수준 모두 전년 대비 낮아져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 비율은 30.4%로, 전년보다 6.3%p 감소함.
 - 반면, 관심이 '없다'는 27.5%로 1.2%p 증가함. 특히, 관심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전년 대비 5.1%p 증가).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많다'는 비율은 23.2%로 역대 가장 낮았음.
 - 이와 달리, '없다'는 34.9%, '보통이다'는 41.9%로, 각각 전년 대비 8.1%p, 1.9%p 증가함.

도시민의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변화

단위: %

문항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										
正智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6.0	3.9	5.5	3.7	3.3	3.9	5.1
많은 편이다	29.2	30.9	36.5	33.0	34.5	36.3	30.3	30.0	26.8	27.5	32.8	25.3
많다(소계)	35.0	37.1	44.2	36.3	37.9	42.3	34.2	35.6	30.5	30.8	36.7	30.4
보통	37.1	38.8	33.1	37.5	32.5	37.1	36.8	36.4	36.5	36.4	37.0	42.1
없는 편이다	25.2	22.0	20.4	22.8	27.4	19.3	26.1	24.5	28.5	29.6	23.1	22.7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1.3	3.0	3.6	4.5	3.2	3.1	4.9
없다(소계)	27.9	24.1	22.7	26.2	29.6	20.6	29.1	28.0	32.9	32.8	26.3	2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성										
正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우 많다	7.7	4.9	8.8	3.9	4.7	7.0	4.3	4.2	4.8	3.5	3.1	4.7
많은 편이다	32.8	28.1	28.8	26.6	27.9	27.9	24.3	28.5	22.3	24.0	30.1	18.5
많다(소계)	40.5	33.0	37.6	30.5	32.6	34.9	28.6	32.7	27.1	27.5	33.2	23.2
보통	34.5	37.9	36.3	39.3	34.5	38.6	34.6	36.7	35.7	38.5	40.0	41.9
없는 편이다	21.9	25.1	22.0	24.3	29.8	24.2	31.2	25.9	30.7	27.5	22.8	25.9
전혀 없다	3.1	4.1	4.1	5.9	3.0	2.3	5.6	4.7	6.5	6.5	4.0	9.0
없다(소계)	25.0	29.2	26.1	30.2	32.8	26.5	36.8	30.6	37.2	34.0	26.8	3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도시민의 74.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고 평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가 많다'('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고 답한 도시민은 74.7%로, 전년 대비 16.0%p 상승함. 반면, 5.2%는 '가치가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20.0%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각각 전년 대비 3.2%p, 12.8%p 감소함.

표 2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혀 없다	0.2	0.1	0.2	0.0	0.1	0.3	0.4	0.7	0.4	0.3	0.9
별로 없다	4.1	3.3	6.5	3.5	4.7	5.1	8.7	7.7	5.9	8.1	4.3
없다(소계)	4.3	3.4	6.7	3.5	4.8	5.4	9.1	8.4	6.3	8.4	5.2
보통이다	29.5	26.1	31.3	26.5	22.9	30.4	34.6	32.2	30.7	32.8	20.0
많은 편이다	54.3	58.7	55.1	61.9	49.7	55.5	48.4	49.3	58.0	52.9	55.5
매우 많다	11.9	11.8	7.0	8.1	22.5	8.7	7.8	10.1	5.0	5.9	19.2
많다(소계)	66.2	70.5	62.1	70.0	72.2	64.2	56.2	59.4	63.0	58.8	7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관련 수준은 감소한 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긍정 평가하는 경향은 늘어

- 조사 시작 이래 도시민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는 답변은 가장 적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가 '많다'는 답변은 가장 많았음.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나 관련성 수준과 관계없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은 강화된 것으로 보임.

그림 1 도시민의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 가치 판단 변화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도시민의 62.3%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동의

- 10년 전과 비교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62.3%)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남.
 - 조사 시작 이래 추가 세금부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역대 가장 낮은 20.3% 수준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남.

표 3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추가 세금부담 의향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적극 찬성	4.3	3.7	1.4	9.6	14.5	18.4	7.7	17.8	16.5	15.1	14.2
찬성한다	46.6	55.7	53.2	44.2	38.5	41.8	45.5	42.3	49.3	47.3	48.1
찬성(소계)	50.9	59.4	54.6	53.8	53.0	60.2	53.2	60.1	65.8	62.4	62.3
반대한다	31.3	27.7	32.2	38.7	32.4	34.7	33.6	25.9	22.7	28.1	17.3
적극 반대	6.7	5.0	6.6	2.7	5.5	1.4	3.4	1.9	1.3	2.5	3.0
반대(소계)	38.0	32.7	38.8	41.4	37.9	36.1	37.0	27.8	24.0	30.6	20.3
잘 모르겠다	11.0	7.8	6.6	4.8	9.0	3.6	9.7	12.1	10.3	7.0	17.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는 응답과 추가 세금부담 '찬성' 응답 간 격차는 12.4%p

-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격차가 확대되었음.
 - 최근 3년 동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추가적인 세금부 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4년 조사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하며 역전되었음.
 -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 만이 해당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동의하는 결과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한 태도 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 및 추가 세금 부담 인식 변화

단위: %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 중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약 5배 높아

- '13년 이후 대체로 도시민 절반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꾸준히 찬성함.
 - '24년 조사 결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54.5%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함. 이는 '반대한다'('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 10.5%의 약 5배 수준임.
 - 앞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나 자신과의 관련성이 '많다'는 응답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도시민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도시민의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1.3.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비율은 57.3%로 역대 최고 수준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 ('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은 57.3%로, 전년보다 20.1%p 증가하였음.
 - 반면에 의향이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은 39.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감소함.

표 4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우 많다	15.0	8.7	10.5	6.7	18.7	8.5	9.7	10.5	12.6	8.9	16.9
조금 있다	28.6	30.3	36.5	34.5	25.4	26.2	31.6	23.9	24.6	28.3	40.3
있음(소계)	43.6	39.0	47.0	41.3	44.1	34.6	41.3	34.4	37.2	37.2	57.3
별로 없다	32.9	28.7	25.1	29.5	33.7	35.7	37.2	34.7	35.3	37.8	26.9
전혀 없다	19.7	25.8	23.4	25.8	20.2	23.6	14.9	26.1	20.7	21.3	12.8
없음(소계)	52.6	54.5	48.5	55.3	53.9	59.3	52.1	60.8	55.9	59.1	39.7
잘 모르겠다	3.7	6.5	4.5	3.4	2.0	6.1	6.5	4.7	6.9	3.7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 도시민 사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9.6%),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8.3%)가 주요 이유임.
 - 반면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7.5%),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1.2%),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2.0%)라는 이유는 이전 조사 결과 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와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각각 5.1%), '기타(대규모 감염병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포함)'(1.2%) 이유는 소폭이지만 이전 조사 결과 대비 증가하였음.

표 5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이유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5.7	6.4	11.2	5.2	4.3	3.4	4.8	5.1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3.8	5.1	3.7	9.0	7.9	10.2	12.0	7.5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8.1	53.4	46.0	43.2	53.0	43.0	41.0	49.6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3.3	2.8	2.8	3.0	1.9	4.3	10.6	1.2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7.4	8.9	9.0	7.7	4.6	9.0	9.7	2.0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3	22.3	21.4	20.5	21.9	24.6	16.5	28.3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3.2	1.1	5.3	7.5	4.6	4.1	4.8	5.1
기타(대규모 감염병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포함)	0.2	0.0	0.6	3.9	1.8	1.4	0.6	1.2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4. 시사점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고 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감소세로 각각 30.4%, 23.2%에 불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 10명 중 약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함. 이는 자신의 관계 정도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도시민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도시민의 비율은 62.3%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은 54.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이는 증액을 반대한 비율의 약 5배 수준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농촌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국민의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상승한 57.3%로 역대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주요 이유는 '자연 속 건강한 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여전히 영농목적보다는 자연 친화적환경에 대한 거주 선호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상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도시민의 미래 정주지로서 농촌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02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2.1.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농업인은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아

-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중 '환경 보전'과 '경관 보전'을 꼽은 비율은 감소함.
 - 농업인이 평가한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현재(66.6%), 미래(49.0%)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이 꼽혀, '22년과 비교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중 '식품 안전성 향상'을 꼽은 비율은 '22년 대비 11.8%p 증가하였고, '환경 보전'과 '경관 보전'은 '22년 대비 각각 5.1%p, 4.7%p 감소한 28.9%, 7.7%로 나타남.
 - 상기 경향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평가에도 유사하게 드러남. '지역 활성화'와 '식품 안전성 향상'을 꼽은 비율은 '22년 대비 각각 11.9%p, 6.8%p 증가한 반면, '환경 보전'과 '경관보전'은 '22년 대비 각각 8.8%p, 8.1%p 감소함.

농업인의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변화(복수응답)

단위: %

78		현	재		미래					
구분	2018	2020	2022	2024	2018	2020	2022	2024		
안정적 식량 공급	73.1	68.6	63.3	66.6	55.4	38.8	40.6	49.0		
지역 활성화	24.1	33.4	39.4	40.2	36.1	23.1	25.3	37.2		
여가 공간 활용	5.6	8.3	12.6	10.4	9.7	14.8	14.8	11.0		
문화유산 보존·계승	4.8	3.0	4.5	4.0	8.9	5.5	9.0	8.9		
식품 안전성 향상	40.3	37.6	25.3	37.1	41.5	36.7	30.6	37.4		
환경 보전	26.4	28.6	34.0	28.9	21.8	46.3	44.7	35.9		
경관 보전	6.8	7.0	12.4	7.7	12.9	16.5	21.6	13.5		

주 1)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2년 단위로 조사함.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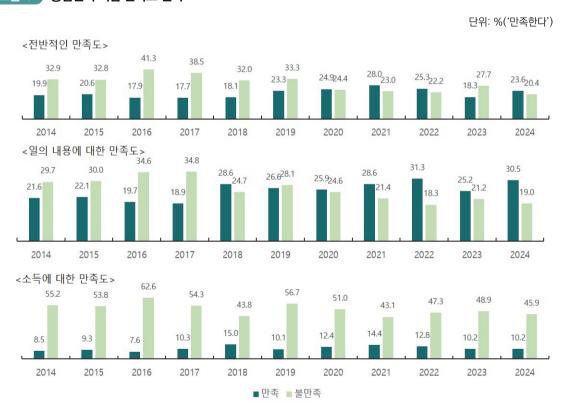
^{2) &#}x27;기타'와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2. 직업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대비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아

- 농업인 중 전반적으로 직업에 '만족한다'('만족'과 '매우 만족')는 비율은 23.6%로, 전년도 18.3%보다 5.3%p 상승하였음. 반면에 '불만족한다'('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비율은 20.4%로, 전년도 27.7%보다 7.3%p 감소함.
 -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는 비율은 30.5%로 전년도 25.2%보다 5.3%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9.0%로 전년도 21.2%보다 2.2%p 감소함.
 -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는 비율은 10.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음.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45.9%로 전년도 48.9%보다 3.0%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인 약 2명 중 1명은 농업 소득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변화



주: '보통이다',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인 절반은 직업으로서 농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아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은 '15년 이후 불만족 이유 1순위를 꾸준히 차지함. 다만 그 비율은 46.2%로 전년보다 8.4%p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응답률이 증가한 항목에는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8.8%, 3.3%p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5.0%, 3.4%p ↑),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1.2%, 1.8%p ↑)가 포함됨.
 -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 2.5% 가운데 1.7%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1.3%p 감소한 0.9%에 머물렀음.

표 7 농업인의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변화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49.0	59.3	60.4	53.7	51.5	50.1	50.4	52.7	54.6	46.2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1.5	18.7	16.8	15.5	14.4	7.8	11.6	10.1	9.4	11.2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0.0	10.0	11.5	14.0	12.2	12.3	9.6	16.5	15.5	18.8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5.7	8.0	9.3	12.0	14.2	20.4	18.5	13.2	11.6	15.0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1.7	1.8	1.6	4.8	2.2	1.5	1.1	1.7	2.2	0.9
기타(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포함)	2.0	2.2	0.3	0.0	1.9	1.3	2.0	3.1	2.9	2.5
모름/무응답	_	_	_	-	3.6	6.6	6.9	2.8	3.6	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3. 농업 경영 여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올해 농업인이 꼽은 농업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 농업 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20.0%), '농업 생산비 증가'(18.3%),
 '일손 부족'(15.6%),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20.0%)는 전년 대비 6.7%p 증가해 농업 경영상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힘.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응답률이 증가한 항목으로(14.2%p) 다른 위협 요소들을 압도하였음.
 - 다음으로 많은 농업인이 응답한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18.3%)와 '일손 부족'(15.6%), '태 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7.3%)로, 각각 전년 대비 2.8%p, 0.3%p, 2.5%p 감소하였음.
 - 반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FTA 등 개방 확대)',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등이 위협 요소로서 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농업인의 농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위협 요소 변화(3순위까지 응답)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업 생산비 증가	14.2	13.8	14.0	16.6	15.6	14.3	19.1	23.5	21.1	18.3
일손 부족	14.1	15.0	16.6	17.0	15.3	15.9	19.4	16.8	15.9	15.6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5.8	9.5	6.9	7.9	9.6	16.3	13.5	11.5	13.3	20.0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	3.0	4.3	3.6	7.7	5.6	13.6	4.5	4.0	9.8	7.3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10.6	8.4	8.7	7.5	8.0	7.0	7.5	7.5	6.2	5.8
판로 확보 어려움	9.6	10.1	7.7	7.3	9.7	7.4	6.8	6.7	5.5	7.1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5	4.9	4.7	4.8	4.7	4.4	4.2	5.8	5.3	3.6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FTA 등 개방 확대)	17.6	12.2	14.6	4.4	10.7	3.3	4.2	5.1	4.7	4.6
농가 부채 증가	4.1	4.2	4.0	5.0	4.4	3.9	3.1	3.9	4.0	2.8
후계인력 부족/부재	5.3	4.8	6.4	7.7	3.8	3.4	5.2	3.7	4.0	3.8
농업정책 효과 부족(농업정책 오류)	5.4	5.2	6.1	5.4	5.5	2.7	5.8	4.5	3.6	4.5
영농자금 압박	1.8	2.0	1.7	1.7	2.8	2.3	2.0	2.3	3.1	2.1
조수 피해	1.5	2.2	2.2	3.3	2.1	2.8	2.1	1.5	1.2	2.3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0.8	0.6	1.2	1.3	0.7	0.9	0.4	0.6	1.0	0.6
농지 부족	0.3	0.6	0.6	1.2	1.0	1.3	1.4	1.2	0.8	1.3
기타(무응답 포함)	0.6	2.3	1.0	1.2	0.7	0.5	0.9	1.6	0.5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3순위까지 응답하는 복수응답 문항으로 응답 항목별 비율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함. 이를 총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제시함.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올해 농업 경영 여건은 전년 대비 대체로 열악하였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해

- 농업인은 전년 대비 올해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생산량, 매출액, 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올해 대비 내년에는 '생산비', '자금조달 필요성'을 제외한 항목에서 경영 상황이 대체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음.
 - 전년 대비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비율은 67.5%로, 내년에는 58.9%로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명 중 1명은 생산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비교해, 매출액(65.0%), 이익(64.2%), 생산량(54.5%), 판매가격(52.6%)은 전년 대비 올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내년에는 매출액(40.9%)과 이익(42.8%)이 감소할 것으로, 생산량 (47.4%)과 판매가격(40.8%)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음.
 - 자금조달 필요성과 투자 여력의 경우, 농업인 2명 중 1명은 전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모두 각 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5 농업인의 전년도 대비 농업 경영 여건 평가 및 내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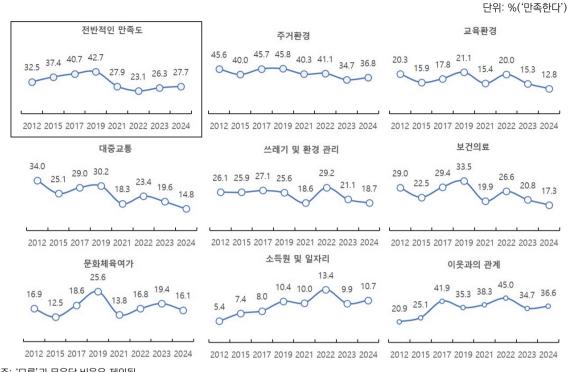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4. 농촌 생활 만족도

농업인의 전반적인 농촌 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7.7%를 기록

-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는 비율은 27.7%로, 전년보다 1.4%p 증가함.
 -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근 4년 동안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환경', '대중교통', '보건의료' 등은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농촌 생활 분야 중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36.8%, 36.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반면, '교육환경', '대중교통', '쓰레기 및 환경 관리', '보건의료', '문화체육여가' 등은 10%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
 - 만족도 수준을 전년과 비교하면, '주거환경' 분야는 2.1%p, '이웃과의 관계'는 1.9%p, '소득원 및 일자리'는 0.8%p 증가함. 이와 달리 '대중교통'은 4.8%p, '보건의료' 3.5%p, '교육환경' 2.5%p, '쓰레기 및 환경 관리' 2.4%p, '문화체육여가' 3.3%p 감소하였음.

그림 6 농업인의 농촌 생활 분야별 만족도 변화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5. 시사점

- 농업인 약 2명 중 1명은 현재와 미래 모두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음. 특히, 미래 기능의 경우 2022년에 '환경 보전'을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던 것에서 변화한 결과임 ('24년 35.9%).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보하는 일을 우리 농업·농촌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3.6%, 30.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소득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45.9%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인 약 2명 중 1명은 농업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이번 조사를 포함한 역대 조사 결과, 농업인은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1순위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아 왔음. 이는 농업인 사이에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요가 상당할 것임을 시사함.
- 특히 올해 농업 경영을 위협한 가장 주된 요소는 전년도 3위에 머물렀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20.0%)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추정됨.

- 전년 대비 올해 농업 경영 여건에 대한 평가와 올해 대비 내년 농업 경영 여건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 다수는 전년 대비 올해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생산량, 매출액, 이익 모두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내년에는 대체로 경영 상황이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인 중약 60%는 생산비가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로 미래의 불확실 성이 높아지면서 생산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업인 중 농촌 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7.7%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환경 (12.8%), 대중교통(14.8%), 보건의료(17.3%)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 만족하는 비율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촌의 정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인구 유출 가속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와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03



올해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3.1. 현 정부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평가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해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평가의 긍정 응답률은 농업인(만족도 7.0%, 평가 8.2%)이 도시민(만족도 15.3%, 평가 15.5%)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농업인은 51.7%, 도시민은 26.5%로 격차가 상당함. 이 같은 경향은 전반적인 평가(농업인 52.9%, 도시민 27.4%)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음.

그림 7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평가(도시민 vs 농업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2.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이슈로 생산자인 농업인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소비자인 도시민 은 장바구니 물가 관련 이슈를 선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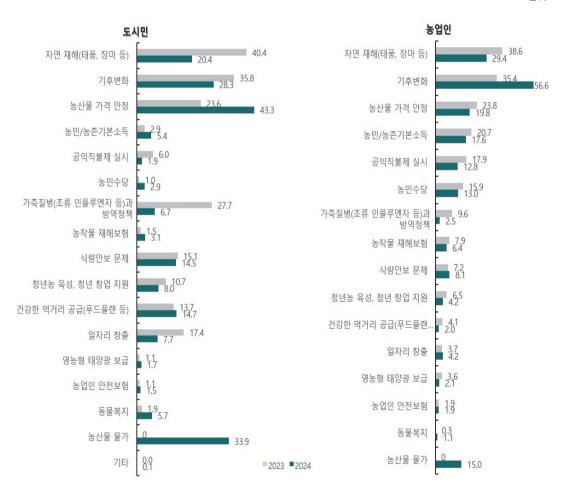
•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은 '기후변화'(56.6%),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29.4%)를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것과 달리,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43.3%), '농산물 물가'(33.9%)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냄.

- 그 외,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안정'(19.8%), '농민/농촌기본소득'(17.6%), '농산물 물가'(15.0%), '농민수당'(13.0%), '공익직불제 실시'(12.8%) 등의 순으로 소득과 직결된 분야에 관심이 높았음. 이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그 외, 도시민은 '기후변화'(28.3%), '자연 재해(태풍, 장마 등)'(20.4%), '건강한 먹거리 공급(푸드 플랜 등)'(14.7%), '식량안보 문제'(14.5%) 등의 순으로 관심이 높았음.

그림 8 2024년 농식품 이슈 중 관심이 많았던 분야(복수응답)(도시민 vs 농업인)

단위: %



- 주 1) 복수응답을 중복응답 처리 후 합산 퍼센트로 표현함.
- 2)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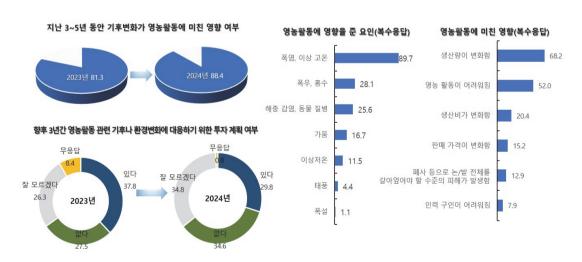
3.3. 농업인이 인식하는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

대부분 지난 3~5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은 저조한 수준

- 지난 3~5년간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8.4%로 전년 대비 7.1%p 증가함. 특히, '폭염, 이상 고온',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결과로 '생산량 변화'(68.2%), '영농활동의 어려움'(52.0%) 등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남.
 - 기후변화로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농업인(1,225명)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폭염, 이상 고온'(89.7%), '폭우, 홍수'(28.1%), '해충 감염 또는 동물 질병'(25.6%), '가뭄'(16.7%) 등이 꼽혔음.
 -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에는 '생산량이 변화함'(68.2%), '영농활동이 어려워짐'(52.0%), '생산비가 변화함'(20.4%), '판매가격이 변화함'(15.2%), '폐사 등으로 논/밭 전체를 갈아엎어야 할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12.9%) 등이 포함됨.
 - 그러나 향후 3년간 영농활동 관련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는 농업인은 전년보다 8.0% 낮은 29.8%에 그쳤으며, '없다' 34.6%, '잘 모르겠다' 3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농업인의 지난 3~5년간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 및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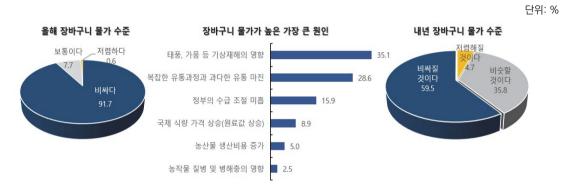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4. 도시민이 인식한 올해 장바구니 물가 수준 및 필요 대책

10명 중 9명은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평가, 10명 중 6명은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

- 도시민 대부분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의 영향' (35.1%),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28.6%), '정부의 수급 조절 미흡' (15.9%) 등을 꼽았음.
 - 도시민 중 올해 대비 내년 장바구니 물가수준이 '비싸질 것이다'라고 전망한 비율은 59.5%로 우세하였음.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는 35.8%, '저렴해질 것이다'는 4.7%에 그침.

그림 10 도시민의 올해 장바구니 물가수준과 원인에 대한 인식 및 내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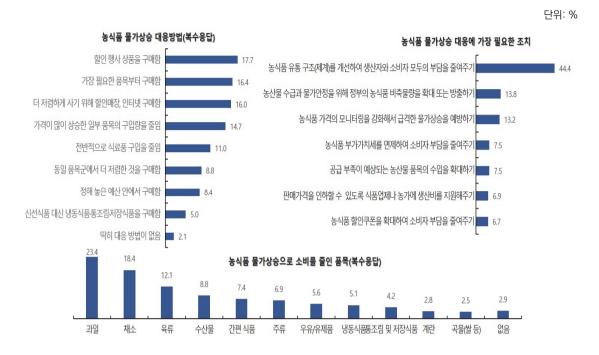


주: '기타', '잘 모르겠음'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을 꼽아

- 도시민은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행사 상품', '필수 품목', '할인매장,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를 하고 있으며,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순서로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할인행사 상품을 구매함'(17.7%), '가장 필요한 품목부터 구매함'(16.4%),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할인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함'(16.0%),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일부 품목의 구입량을 줄임'(14.7%)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제 소비를 줄인 품목은 '과일'(2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채소' (18.4%), '육류'(12.1%), '수산물'(8.8%), '간편 식품'(7.4%), '주류'(6.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농식품 유통 구조(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주기'(44.4%), '농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식품 비축물량을 확대 또는 방출하기'(13.8%), '농식품 가격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급격한 물가상승을 예방하기'(13.2%) 등을 꼽았음.

그림 11 도시민의 농식품 물가상승 대응과 소비를 줄인 품목 및 우선 필요 조치



주: '기타', '없음'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5. 시사적

- 농업인 약 2명 중 1명은 현 정부의 전반적인 농업·농촌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구체적으로 농업 인 51.7%는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52.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도시민(각각 26.5%, 27.4%)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결과로, 직접적 정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농업인 사이에 비판적 인식이 더 우세함을 알 수 있음. 이는 현장의 상황과 수요에 기반한 농업·농촌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전년에 이어 '기후변화', '자연 재해' 등을 꼽은 것과 달리,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산물 물가' 등을 답하였음. 이는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둘러싼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실제 농업인 중 88.4%는 지난 3~5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년 81.3%보다 증가한 수치임.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량 변화(68.2%)와 영농활동 어려움 가중 (52.0%)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비율은 전년도 37.8%보다 낮은 29.8%에 그침. 생산비 증가로 개별 농가의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도시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비싸다고 평가하였으며, 도시민의 59.5%는 내년에 장바

구니 물가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도시민은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저렴한 상품이나 꼭 필요한 상품만을 선택하거나 할인 구매가 가능한 경로를 찾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실제소비를 줄인 품목에는 과일(23.4%), 채소(18.4%)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지원 시 이러한 품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시민이 꼽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의 영향(35.1%)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28.6%), 정부의 수급 조절 미흡(15.9%) 등의 순서로 나타남. 다만 도시민이 꼽은 정부의 시급한 물가안정 대책 1순위는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44.4%),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 또는 방출'(13.8%) 등이었는데, 이는 응답 항목에 기상재해 대응 관련 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영향일 수 있음.

부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

-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전국 2,828명(농업인 1,328명,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당년도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비고정 문항은 언론 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각 분야 학계 전문가, 농업 현장 종사자, 정책실무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328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전국 읍면 거주 농업인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주: 도시민 조사는 그동안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해오다 올해 '온라인 패널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온라인 조사는 전통적인 면접조사 방법보다 응답 자의 응답 유연성이 커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고, 면접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이점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¹⁾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 중인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참고문헌

